

친환경적인 동물사체 처리방안을 마련했어요!

추진부서 안성시 환경과 ☎ 031-678-2615



개선배경

- 2019년 9월 1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 전국의 모든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및 바이러스 검사 후 사체 폐기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 (환경부, 2019.5월)」에 따라 멧돼지 사체를 현장소각 또는 매몰처리로 폐기하나,
 - 깊은 산골, 야간에 포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비(포크레인 등)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이 대부분이며
 - 여건상 현장 소각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지자체가 발견 (수렵) 장소 인근 현장에 매몰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ASF 발생지역 외 지역까지도 멧돼지 사체 (바이러스 검사결과 음성)를 전량 현장 매몰 처리할 경우, 관리 대상 매몰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 발생

[문제점 발생사례]

- 미관저해, 침출수 등 환경오염 발생우려
- 야간 및 겨울철 현장 매몰 어려움 발생 (별도 매몰 인력 필요)
- 토지 소유주 동의 필요 (포획지역 인근에 국유지가 없을 경우)
- 담당 공무원 수시 확인 필요 (포획 보상금 지급, 매몰규정 준수 등)
- 지속적인 매몰지 관리인력 소요 (표지판 설치, 약 3년간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등)
- 기피시설로 인한 생활민원 발생 등



개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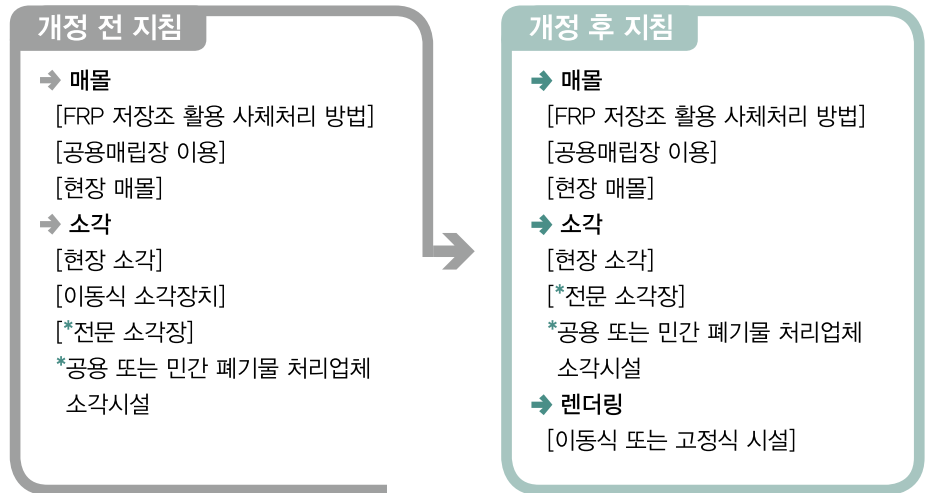
개선전

-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발견장소에서 매몰 처리

개선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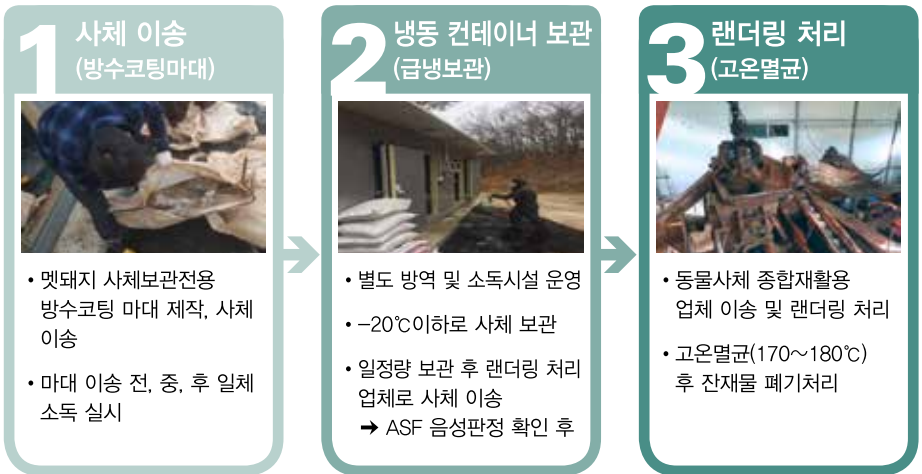
- ASF 발생 외 지역의 경우 친환경적인 멧돼지 사체처리방안인 렌더링 처리 방안 건의, 환경부 관련 지침 개정

- 2019년 당시 환경부의 지침대로 멧돼지 사체를 현장 매몰처리 했을 경우, 약 700여개의 매몰지 발생 → 무분별한 매몰지 확대로 인한 인근지역 생활민원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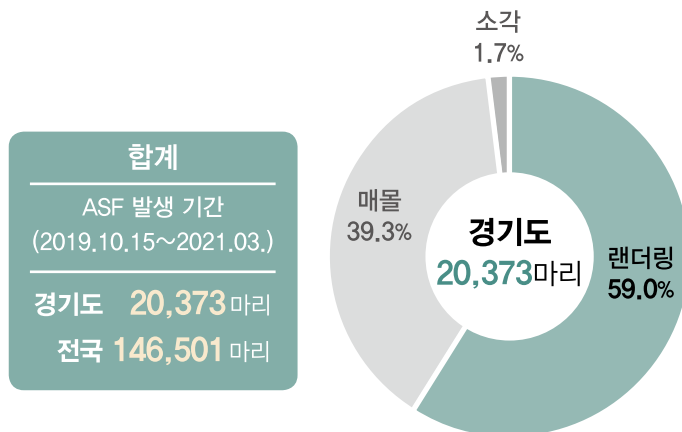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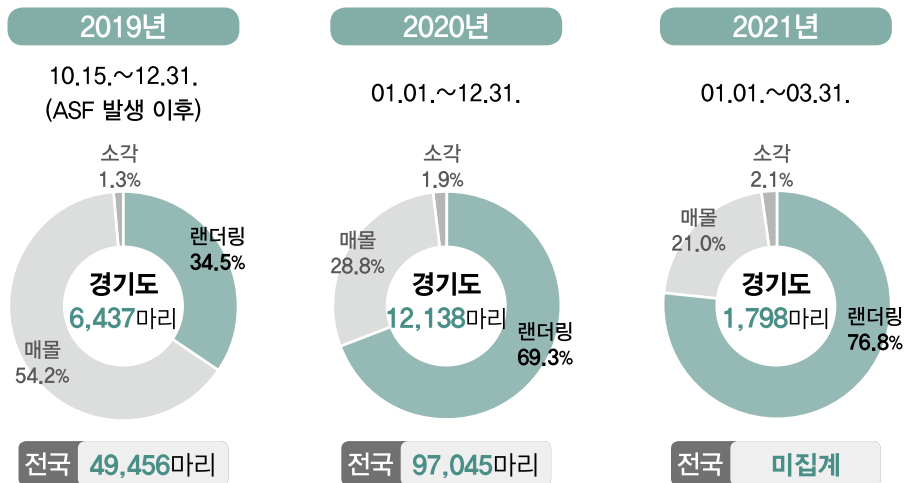


추진과정

- '19.05.15.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 제정 (환경부)
- '19.06.18.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안성시 피해방지단 간담회 개최
- '19.09.17. 파주 돼지농장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위기경보'심각'단계 격상
- '19.09.30.~10.15. 멧돼지 사체 매몰의 문제점 도출 (인근지역 민원 발생 등)
- '19.10.16. ASF 발생 외 지역의 야생멧돼지(바이러스검사 결과 음성)의 경우 사체처리 방법으로 랜더링 추가 건의 (안성시→경기도→환경부)
- '19.10.22. ASF 대응 멧돼지 사체처리 요령 의견 조회 (환경부)
→ 랜더링 처리방법 추가에 따른 전국 지자체 의견 조회
- '19.10.22. 안성시 ASF 대응 긴급 예비비 편성 (228,940천원)
- '19.10.23. 냉동컨테이너 설치계약 체결
- '19.10.23. 야생멧돼지 이송 및 보관용 이중 코팅마대 제작
- '19.10.26. 냉동컨테이너 설치 완료, 멧돼지 사체 냉동보관
- '19.11.07. ASF 대응 멧돼지 사체처리 방안 마련 통보 (환경부)
→ 사체 랜더링 처리방법 추가 (긴급공문 발송)
- '19.11.11. 안성시 야생멧돼지 사체 랜더링 처리
- '20.10.23.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 개정 (환경부)
→ ASF 대응 멧돼지 사체 랜더링 처리방법 추가



● 전국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현황



- 사체 처리방법 변경에 따른 미관 저해, 침출수 등 환경오염 발생 원천 차단
- 안정적인 사체처리로 인한 관리 예산 및 행정인력 절감
 - － 매몰지 설치 후 향후 사후관리 예산을 산정할 경우, 최소 약 1,000억원 예산 절감
 - － 매몰장소 검토, 소유주 동의, 표지판 설치 및 지속적인 매몰지 관리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 기피시설 발생으로 인한 생활민원 발본색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안성시 피해방지단
간담회



2021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수상사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응 관련 친환경적인 동물사체 처리방안을 마련하다.



안성시 환경과 하정호 031-678-2615

2010년 12월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여 안성시에서만 가축 211만두가 살처분되고, 가축매몰지 216개가 조성되어 수년동안 침출수와 악취로 인해 고통받던 시민들을 생각하면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지난 2019년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국내 최초로 발생됨에 따라 그동안 구제역이나 AI를 통해 축사 주변을 방역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해진 메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나 야생멧돼지를 포획하고 관리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업무였습니다.

안성시에서는 ASF 발생 외 지역의 야생 멧돼지 사체까지도 현장 매몰처리될 경우 환경오염문제와 관리인력 소요, 생활민원 발생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빠르게 랜더링 방식을 경기도와 환경부에 건의하여, 마침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 지침」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랜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는 사체 보관 냉동창고 등 기 조성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환경부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고라니, 비둘기 등 폐사체의 경우에도 랜더링 방식으로 처리하여 야생동물 폐사체가 산속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불법 매립 등 부실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들로 인해 상위 지침이 바뀌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업무추진에 보람을 느끼고, 공직생활도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하며 시민과 도민의 입장에서 각종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안성맞춤형 정책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